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 8호' : 충북도민의 눈물'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7일(화),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8호 : 충북도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충북도민의 눈물’은 김영환 충북도정의 2년 연속 경제 역성장, 정책 실패, 논란 발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화려한 홍보와 자화자찬 뒤에 숨겨진 행정 무능, 정치적 편향, 시민 무시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도민이 김영환 도정을 냉정히 평가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발간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김영환 충북도정의 7가지 문제를 경제·정책적 무능, 행정·재난 대응 부실, 정치·금전 스캔들의 세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 첫째, 경제·정책적 무능으로 2년 연속 GRDP 역성장(2023년 -0.7%, 2024년 -1.5%) 기록에도 자화자찬, SK하이닉스 착시효과에 의존한 투자 홍보, 제3자 변제안 옹호로 “친일파 되겠다” 발언 논란을 다루었다.
 - 둘째, 행정·재난 대응 부실로 오송참사 현장에 4시간 늦은 도착과 “내가 가도 바뀔 것 없다” 발언, 제천 산불 당시 비공식 음주 모임 참석, 청소년 공간 매입 시 경매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 국가문화재 충북도청 훼손 리모델링을 지적했다.
 - 셋째, 정치·금전 스캔들로 내란죄 수사 중단 요구와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발언, 폐기물업체 30억 차입 의혹, 체육회장 돈봉투 수수 혐의 등을 제시했다.
-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8편, 충북도민의 눈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도정의 실적을 냉정히 검토해 도민이 지역 발전을 위한 진짜 일꾼을 선택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